

[1~4] (가)는 학교 신문반 회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 지난 회의에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대한 기사를 쓰기로 결정했는데, 오늘은 기사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해 보자.

학생 2 :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가 급식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아. 본문의 처음 부분에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면 학생들이 기사 내용에 주목할 거야.

학생 3 : 그러면 학생들이 단순히 급식 메뉴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행사의 취지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므로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행사가 실시된다는 취지부터 언급하는 것이 좋겠어.

학생 1 : 좋아. 그렇게 하면서 급식 메뉴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하게 된 취지가 표제나 부제에 드러나도록 하자.

학생 2 : 그래. 너희들의 의견대로 하면 기사의 핵심 내용이 강조되겠구나. ㉡ 그럼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취지부터 부각한 후, 선정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밝히자.

학생 1, 3 : 응, 그래.

학생 1 : ㉢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는지도 소개해야 하지 않을까?

학생 3 : 좋아. 그런데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밝혀야 하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 점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

학생 2 : 그 내용도 필요한데 너무 길게 쓰면 기사가 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이 점을 고려하여 쓰면 좋겠어. 그리고 ㉣ 급식 메뉴 선정 방법을 그 과정에 따라 서술하자. 그러면 기사를 읽은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선정하게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학생 1, 3 : 그게 좋겠다.

학생 3 : 내가 취재해 보니,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생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고려해야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더라.

학생 1 : ㉤ 맞아. 전에 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어 알고 있는데, 그 기준들과 학생들의 선호를 모두 고려하여 메뉴를 선정하느라고 매우 힘들었을 거야. 그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자.

학생 2 : 그래, 좋아.

학생 1 : 그럼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할까?

학생 2 :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해결을 촉구하면 어떨까?

학생 3 : 그런 내용은 기사의 통일성을 해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들이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좋겠어.

학생 2 :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겠다. 나도 동의할게.

학생 1 : 응, 그래. 그리고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수 있다는 향후 계획도 함께 언급하면 어때?

학생 2, 3 : 좋아.

학생 1 : 그럼, 이제 기사문을 작성해 보자.

(나)

[표제] 우리가 직접 선정하는 급식 메뉴
[부제]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이기 위해 실시돼

[전문] 4월 3일(수), 3학년 7반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급식 메뉴가 학교 급식으로 제공된다.

[본문] 학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잔반을 줄여 환경 문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1달에 1번씩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한다. 다음 달 급식 메뉴는 3학년 7반 학생들이 선정했다. 메뉴로는 흑미밥, 대패 삼겹살 구이, 상추쌈, 명이 나물, 된장국, 구슬 아이스크림이 선정되었으며, 4월 3일(수) 급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학생들은 매월 잔반을 가장 적게 배출하는 학급의 학생들이 선정된다.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3학년 7반 학생들은 먼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급식 식단표의 열량 정보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의 조언을 구해 급식 메뉴를 결정했다. ㉠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메뉴 선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생들이 직접 급식 메뉴를 선정하면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급식 메뉴가 제공된 후 학생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현재 매월 1회인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러므로 급식 메뉴를 직접 선정하는 행사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1.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지난 회의 결과를 환기하며 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② ㉡ : 기사문의 내용 구성에 대해 논의하며 드러난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③ ㉢ :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기사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제안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④ ㉣ : 기사문의 내용이 독자에게 유용할 수 있도록 기사문의 서술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발화이다.
 - ⑤ ㉤ : 자신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다른 학생이 앞서 말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발화이다.

2.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의견과 절충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의 효과를 고려하여 그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덧붙이고 있다.

3.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이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도하고자 하는 행사의 취지가 드러나도록 표제나 부제를 작성해야겠어. ㉠
-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을 제시하여 행사의 효과를 부각해야겠어. ㉡
- 학생들의 급식 메뉴 선정 횟수를 늘릴 계획과 관련지어 학생들의 행사 참여를 유도해야겠어. ㉢
-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해야겠어. ㉣
- 급식 메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려해 학생들이 선정한 급식 메뉴와 제공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겠어. ... ㉤

- ① ㉠ ② ㉡ ③ ㉢ ④ ㉣ ⑤ ㉤

4. <보기>는 (나)를 작성한 후, 학생들이 퇴고 과정에서 나눈 대화이다. 이를 참고하여 ㉦를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학생 1 : 기사문의 초고를 살피다 보니, 회의에서 기사문에 포함하기로 했던 급식 메뉴 선정 과정의 어려움과 그 이유를 잘 드러내지 못한 것 같아.

학생 2 : 그래, 맞아. 글의 맥락에 맞게,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한 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 ①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급식 메뉴를 선정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 ② 급식 메뉴 선정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선정된 급식 메뉴가 학교 급식 영양 기준과 학생 선호를 모두 반영한 것이므로 선정 메뉴에 대한 불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③ 이 과정에 참여한 ○○○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 위주로 급식 메뉴를 선정하다 보니 학교 급식 단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메뉴를 선정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 ④ 이 과정에 참여한 ○○○은, 영양사 선생님께서 평소 학생들의 선호와 학교 급식 영양 기준을 모두 고려해서 메뉴를 선정하시느라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며 그 노고를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 ⑤ 이 과정에 참여한 ○○○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음식들은 고열량으로 학교 급식 영양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고, 기준에 부합하는 것들은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서 메뉴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했다.

5. <보기>의 자료에 나타난 음운 변동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놓고[노코], 낱던[나 : 턴], 쌓지[짜치]
- ㉡ 당소[다 : 쏘], 종소[조 : 쏘]
- ㉢ 놓는[논는], 쌓네[짚네]
- ㉣ 않는[안는], 많네[만 : 네]
- ㉤ 낳은[나은], 놓아[노아], 쌓이다[짜이다]

- ①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ㄱ, ㄷ, ㅈ'이 오는 경우에는 축약이 일어나는군.
- ②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ㅅ'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는군.
- ③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는 교체가 두 번 일어나는군.
- ④ ㉣를 보니, 받침 'ㄴ' 뒤에 'ㄴ'이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나는군.
- ⑤ ㉤를 보니,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탈락이 일어나는군.

6. <보기>에 제시된 ㉠과 ㉡의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문장에 사용된 어떤 단어가 파생어로 바뀌면 그 파생어로 인해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형용사 '괴롭다'는 동사 '괴롭히다'로 파생된다. 또한 '마음이 괴롭다.'의 '괴롭다'를 '괴롭히다'로 바꾸면 '마음을 괴롭히다.'와 같이 문장 구조가 달라진다.

품사	문장 구조	
○	○ ㉠
○	×	
×	○ ㉡
×	×	

(○ : 달라짐. × : 달라지지 않음.)

- | | |
|----------------------|--------------------|
| ㉠ | ㉡ |
| ① (풀을) 깎다 → (풀이) 깎이다 | (발을) 밟다 → (발이) 밟히다 |
| ② (풀을) 깎다 → (풀이) 깎이다 | (불이) 밝다 → (불을) 밝히다 |
| ③ (방이) 넓다 → (방을) 넓히다 | (책을) 펼다 → (책이) 펼리다 |
| ④ (방이) 넓다 → (방을) 넓히다 | (굽이) 높다 → (굽을) 높이다 |
| ⑤ (음이) 낮다 → (음을) 낮추다 | (문을) 밀다 → (문을) 밀치다 |

7. <보기>의 ㉠ ~ ㉣에 대한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결석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 할 지 모르는 나에게 승호는 필기한 공책을 ㉡ 주고 갔다. 승호는 역시 듬직한 ㉢ 형 같다. 이제 내가 심혈을 ㉣ 기울일것은 ㉤ 공부 뿐이다.

- ① ㉠: '-르지'가 하나의 어미이기 때문에 '할'과 '지'를 붙여 '할지'로 수정한다.
- ② ㉡: '갔다'가 본동사이기 때문에 '주고'와 '갔다'를 붙여 '주고갔다'로 수정한다.
- ③ ㉢: '같다'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형'과 띄어 '형 같다'로 수정한다.
- ④ ㉣: '것이'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기울일'과 띄어 '기울일 것으로' 수정한다.
- ⑤ ㉤: '뿐'이 조사로 쓰였기 때문에 '공부'와 붙여 '공부뿐이다'로 수정한다.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개개인에게 할당하고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그런데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은 사람마다 다양하다. 따라서 정의의 실현은 정의를 정의(定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사회 정의를 말한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롤스, 노직, 왈처가 있다. 롤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왈처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 주창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롤스는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는 명분 아래 개인의 자유가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혜택을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즉,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평등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사회 구성원이 사회적 원칙에 합의할 때 합의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절차를 통한 결과는 정의롭다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창했다. 롤스는 이러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언론과 사상, 종교, 신체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적 자유에 있어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2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인데,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고, 기회 균등의 원칙은 사회적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1원칙은 항상 제2원칙에 우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무지(無知)의 베일'을 쓴, 즉 베일을 둘러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 능력 등을 알지 못하는 ㉡ 원초적 입장에 있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봤는데, 이때 인간은 자신이 가장 불우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에 모든 사람 또는 가장 불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원칙에 모두 합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롤스의 정의론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복지 정책과 같은 재분배의 중요성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원초적 입장이라는 설정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노직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공익을 위해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롤스가 차등의 원칙에 따라 소득과 부에 대한 개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었던 반면,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의라고 보며 개인 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창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면 그 소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런 소유물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개인의 소유물 취득과 양도 과정에 문

제가 없는 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한 강제도 할 수 없으며, 빈부격차가 심화되더라도 자발적 자선 행위가 아닌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는 최소 국가를 옹호한다.

한편 **왈처**는 롤스와 마찬가지로 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봤으나,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상적 상황에서 이끌어 낸 단일한 정의의 원칙을 모든 사회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롤스를 비판했다. 그는 사회에는 해당 공동체의 역사적, 문화적 소산인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며, 그 가치마다 그것이 속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영역의 가치는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는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다. 예를 들어 의료 및 복지라는 가치는 필요에 따라, 돈과 상품은 자유 교환에 따라, 명예 또는 공직은 업적에 따라, 교육은 재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하는 것을 반대하며 경제 영역의 고유 가치인 돈은 경제 영역에만, 정치 영역의 고유 가치인 권력은 정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왈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다른 영역의 가치를 침범하는 것이라 여겼으며, 명예나 공직과 같은 가치가 돈이라는 가치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러한 사회는 정의를올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 평등이 실현될 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8.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질문에 답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 :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

- ① 롤스는 '예', 노직은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 ② 롤스는 '아니요', 노직은 '예'라고 답할 것이다.
- ③ 롤스와 노직은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다.
- ④ 롤스와 노직은 모두 '아니요'라고 답할 것이다.
- ⑤ 롤스, 노직, 왈처는 모두 '예'라고 답할 것이다.

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리주의자들은 사회 전체의 효용성을 기준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군.
- ② 실질적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겠군.
- ③ 왈처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의 문화적, 역사적 소산으로 분배의 대상이 되겠군.
- ④ 정의는 사회를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철학자들에 따라 정의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겠군.
- ⑤ 노직은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보겠군.

1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가) 미국에서는 기여 입학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하버드대와 같은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들은 기부금을 많이 낸 사람의 자녀를 기여 입학 대상으로 선정하여 1,600점 기준의 SAT 점수에 160점 정도의 가산점을 준다.
- (나) 미국의 갑부 워런 버핏은 자신의 소득세율이 17.4%인 것에 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소득세율은 그 두 배 정도인 33~41%라며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의 세율을 인상하고 1천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게는 초과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건자고 주장했다.

- ① (가) :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여 입학제가 지위나 직책에 접근할 기회에 영향을 준다면 기여 입학제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② (가) :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개인의 재산 정도에 따라 입학의 기회가 결정되는 기여 입학제는 개인의 소유물을 양도하는 것에 제약을 두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③ (가) : 왈처의 입장에서 볼 때, 기여 입학제는 경제 영역의 가치인 돈이 교육을 침범한 것으로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에 어긋나는 제도라 할 수 있겠군.
- ④ (나) : 롤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최소 수혜자를 위한 것이라면 차등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나) : 노직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에게 초과 세율을 적용하지는 주장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1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호 간에 우열을 가리게 되어 경쟁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상황
- ② 상호 간에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게 되어 서로를 신뢰하게 만드는 상황
- ③ 상호 간의 이익과 손해를 따지게 되어 인간적인 유대감이 파괴되는 상황
- ④ 상호 간의 개인적 정보를 모르게 되어 합리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상황
- ⑤ 상호 간에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는 상황

12.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능했다 ② 분석했다 ③ 내세웠다
- ④ 제공했다 ⑤ 살펴봤다

[13~16]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부는 마음이 인후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산의 옥결(玉玦)과 같았다. 성덕을 본받고 악인을 저어하며, 물욕에 탐이 없고 주색에 무심하니, 마음이 이러하니 부귀를 바랄 것인가. 홍부 아내가 하는 말이,

“애고 여복소, 부질없는 청렴 밥소. 안자(顔子) 단표(簞瓢)는 주린 염치로 삼십 조사(早死)하였고, 백이숙제(伯夷叔齊)는 주린 염치로 청루* 소년이 웃었으니, ㉠ 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굶겨 죽이겠으니, 아주버님네 집에 가서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얻어 읍소.”

홍부가 하는 말이,

“낮을 쇠우에 슬흔고,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사촌을 몰라보고 똥 싸도록 때리는데, 그 때를 뉘 아들놈이 맞는단 말이요?”

“애고 동냥은 못 준들 쪽박조차 깨칠손가.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아나 본다고 건너가 복소.”

홍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때, ㉡ 치장을 볼 것 같으면 편자 없는 현 망건에 박초기리 관자 달고, 물젼줄로 당끈 달아 대가리 터지게 동이고, 깃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현 술 띠를 흉복통에 둘러 띠고, 떨어진 현 고의(袴衣)에 청운치로 대님 매고, 현 짚신 감발하고 세 살 부채 손에 쥐고, 서슴들이 오망자루 꿩무늬에 비숙 차고, 바람 맞은 병인같이 잘 쓰는 쇠소(灑掃)같이 어숙비숙 건너달아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좌우 바라보니, 앞노적, 뒷노적, 명에노적 담불담불 쌓였으니, 홍부 마음은 즐거우나 놀부 심사는 무거하여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하니, 홍부는 할 일 없어 뜰아래서 문안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네가 뉘고?” / “내가 홍부요.” / “홍부가 뉘 아들인가?”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이요? 비읍니다. 형님전에 비읍니다. 세 끼 굶어 누운 자식 살려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 주시면, 품을 판들 못 값으며 일을 한들 공할손가.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시오.”

애걸하니, 놀부놈의 거동 보소. 성낸 눈을 부릅뜨고 불을 치며 호령하기를,

“너도 염치없다.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이요, 지불생무명지초(地不生無名之草)*라. 네 복을 누굴 주고 나를 이리 보체느냐? ㉢ 쌀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을 헐며, 벼가 많이 있다고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괴목계에 가득 든 것을 문을 열며, 가룟 되나 주자 한들 북고왕 염소독에 가득 넣은 것을 독을 열며, 의복이나 주자 한들 집안이 고루 벗었거든 너를 어찌 주며, 찬밥이나 주자 한들 새끼 낳은 거먹 암개 부엌에 누웠거든 너 주자고 개를 굶기며, 지계미나 주자 한들 구중방(九重房) 우리 안에 새끼 낳은 돌이 누웠으니 너 주자고 돌을 굶기며, 곱섬이나 주자 한들 큰 농우가 네 필이니 너 주자고 소를 굶기랴. 염치없다, 홍부놈아.”

하고, ㉣ 주먹을 불끈 쥐어 뒤꼭지를 짝 잡으며, 몽둥이를 지끈 켜어 손챌 스님의 매질하듯 원화상의 법고 치듯 아주 쿵쿵 두드리니, 홍부 울며 하는 말이,

“㉤ 아이고 형님 이것이 웬 일이요. 방약무인 도적(盜跖)이도 이보다는 성현이요, 무거불측(無據不測) 관숙(管叔)이도 이보다

는 군자로다. 우리 형제 어찌 이다지도 극악한가.”

(중략)

㉥ 놀부 마음에 흐뭇하여 매통에 열 냇씩을 정하고 박을 켜다. “슬근슬근 툽질이야.”

힘써 켜고 보니 한 때 거문고쟁이가 나오며 하는 말이, “우리 놀부 인심이 좋고 풍류를 좋아한다 하기에 놀고 가옵네.” ‘동덩동덩 동덩동덩’ 하기에, 놀부가 이것을 보고 껌보를 원망하는 말이,

“툽도 잘 못 당기고, 네 콧소리에 보화가 변하였는가 싶으니 소리를 모두 하지 말라.”

하니, 껌보 샅받아야겠기에 한 말도 못하고 그리하라 하니, 놀부 일변 돈 백 냇을 주어 보내고, 또 한 통을 타고 보니 무수한 노승이 목탁을 두드리며 나와 하는 말이,

“우리는 강남황제 원당시주승(願堂施主僧)이라.”

하니, 놀부놈이 어이없이 돈 5백 냇을 주어 보내니, 껌보 하는 말이,

“지금도 내 탓이냐?”

하고 이죽거리니, 놀부 이 형상을 보고 통분하여 성결에 또 한 통을 따 오니, 놀부 아내가 말리며 하는 말이,

“제발 덕분에 켜지 마오. 그 박을 켜다가는 폐가망신할 것이니, 덕분에 켜지 마오.”

놀부놈이 하는 말이,

“좁스러운 계집년이 무슨 일을 아는 체하여 방정맞게 날뛰는가.” 하며

또 한 통을 타고 보니 천여 명 초라니*가 ㉦ 일시에 내달으며 달려들어 놀부를 달미잡이하여 가로 떨어치니, 놀부가 거꾸로 떨어지며,

“아이고 아이고 초라니 형님, 이것이 웬일이요. 생사람을 병신 만들지 말고 분부하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 작자 미상, 「홍부전」(경판 25장본), -

* 청루 : 기생집
 *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이요, 지불생무명지초(地不生無名之草) : ‘하늘은 복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는 의미
 * 초라니 : 나례(難禮)를 거행하는 사람 중의 하나로 기괴한 계집 형상의 탈을 쓰고 있음

1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
 - ② 운율감이 느껴지는 어투가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 ③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 ④ 평민 계층의 언어와 양반 계층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
 - ⑤ 전체적으로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17.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미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가 일정할 때 수행된다.
- ② 헌팅 현상이 지속되면 측정값과 설정값이 일치하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 ③ PI 제어에서 조작량은 측정값과 설정값의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출력된다.
- ④ on/off 스위치 방식이 활용된 온도 조절 장치로 물을 데울 때, 조작량은 데울 물의 양이다.
- ⑤ P 제어는 단독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I 제어와 함께 활용되기도 하고 D 제어와 함께 활용되기도 한다.

1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측정값이 설정값보다 낮은 경우이다.
- ② ㉡: 조작량이 100%와 0%인 상태가 반복되는 상태이다.
- ③ ㉢: 100%에서 50% 사이의 조작량이 출력되는 때이다.
- ④ ㉣: 스위치가 on 상태로 지속되는 때이다.
- ⑤ ㉤: 비례 주기가 시작되는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이다.

1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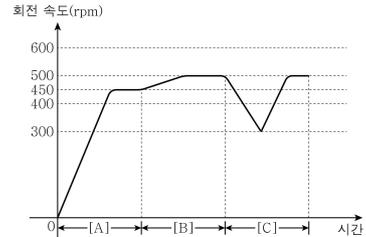
최근 강한 수증기 압력으로 진한 커피를 추출하는 커피 기계가 많이 쓰인다. 이 기계에는 물을 끓이는 가열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 분출되는 수증기의 압력을 조절해 주는 증기압 조절 장치, 수조의 물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물을 보충해 주는 수위 조절 장치 등이 장착되어 있다.

- ① 온도 조절 장치에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 가열기의 작동 초기에 on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오버슈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 ② 온도 조절 장치에 PID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온도가 설정값 위로 갑자기 상승해도 미분 동작에 의해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 ③ 증기압 조절 장치에 P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비례대를 좁게 하면 잔류편차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 ④ 증기압 조절 장치에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 현재의 증기압이 설정값 위로 급하게 상승하는 경우에 스위치를 off로 바꾸어도 증기압이 설정값 아래로 곧바로 낮아지지 않는 것이다.
- ⑤ 수위 조절 장치에 P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on/off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보다 헌팅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다음의 그래프는 'PID 제어 방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에서 모터 회전 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A]에서는 P 제어, [B]에서는 PI 제어, [C]에서는 PID 제어를 활용하였다. (단, 설정값은 500 rpm*, 비례대는 400 ~ 600 rpm, 잔류편차는 50 rpm이다.)



* rpm : 1분당 회전 속도를 표시하는 단위.

- ① [A]에서 비례대가 430 ~ 570 rpm으로 수정되면 잔류편차는 50 rpm보다 크겠구나.
- ② [B]에서 헌팅이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적분 시간을 짧게 수정하면 헌팅의 발생을 막을 수 있겠구나.
- ③ [B]에서 현재보다 적분 시간을 길게 하면 450 rpm에서 500 rpm에 도달하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짧아지겠구나.
- ④ [C]에서 현재보다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 300 rpm에서 500 rpm에 도달하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길어지겠구나.
- ⑤ [C]에서 미분 동작으로 오버슈트가 발생했을 때, 현재보다 미분 시간을 길게 수정하면 오버슈트를 막을 수 있겠구나.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 어리고 성긴 가지 너를 믿지 아녜더니
 눈 기약 능히 지켜 두세 송이 피었구나
 축(燭)잡고 가까이 사랑할 제 ㉠ 암향(暗香)* 조차 부동(浮動)*
 터라

㉡ 빙자옥질(氷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바람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 새어 들어 잠든 매화를 침노(侵擄)한다
 아무리 얼우려한들 ㉢ 분뜻이야 앗을소나

동각(東閣)에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화인가
 건곤(乾坤)이 ㉣ 눈이거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누 있으리

- 안민영, 「매화사」 -

* 암향 : 그윽히 풍겨오는 향기.

* 부동 : 떠서 움직임.

* 빙자옥질 :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

* 아치고절 : 우아하고 높은 절개.

(나)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옇고	新蕪濁酒如湮白
큰 사발에 보리밥, 높이가 한 자로세.	大碗麥飯高一尺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飯罷取枷登場立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雙肩漆澤翻日赤
응해야 소리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呼邪作聲舉趾齊
삼시간에 보리 난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須臾麥穗都狼藉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雜歌互答聲轉高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뿐이로다.	但見屋角紛飛麥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觀其氣色樂莫樂
마음이 몸의 노에 되지 않았네.	了不以心爲形役
〔단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樂園樂郊不遠有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何苦去作風塵客

- 정약용, 「보리타작」 -

(다)

담양에는 대나무 숲이 많다. 대숲은 들판 여기저기 들어서 있다. 집 한 채를 품고 있는 숲도 있고 마을을 품고 있는 숲도 있다. 멀리서 보면 담양의 대숲은 들판에 흩어진 섬과 같다. 봄의 대숲은 연두색이다.

대숲은 자연림이지만 활엽수림처럼 자유의 산만함이 없다. 대숲은 가지런하고 단정하다. 봄의 대숲은 자작나무숲이나 오리나무숲처럼 생명의 기쁨으로 자지리지 않고, 여름의 대숲은 다른 활엽수림처럼 비린내 나는 습기를 내뿜지 않는다. 대숲은 늘 스스로 서늘하고, 잘 말라서 질퍽거리지 않는다. 대숲은 늘 꿈속처럼 어둡어둡하다. 이것이 몽밀(蒙密)이다. 대나무로는 무기도 만들고 악기도 만든다. 죽창과 피리가 모두 대나무다. 대나무로는 연장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사군자도 친다. 세상을 깨부수고 바꾸려는 사람들은 대나무 숲으로 와서 무기를 구했고, 세상을 버리고 숨으려는 사람들은 대나무 숲으로 돌아와 누웠다. 그래서 대나무 숲은 세상으로 나가는 전진기이며 세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후방의 쓸쓸한 단원이다. 대나무 숲은 전투적 이념의 절정이며 은둔의 맨 뒷전인 것이다.

대나무의 삶은 두꺼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 대나무는 죽순이 나와서 50일 안에 다 자라버린다. 더 이상은 자라지 않고 두꺼워지지도 않고, 다만 단단해진다. 대나무는 그 인고의 세월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나이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 왕대는 80년에 한 번씩 꽃을 피운다. 눈이 내리듯이 흰 꽃이 핀다. 꽃이 피고 나면 대나무는 모조리 죽는다. 꽃 속으로 모든 힘이 다 들어가서 대나무는 더 살 수가 없다. 대꽃은 흥흥하다. 담양의 노인들은 “대꽃이 피면 전쟁이 난다.”고 말한다. 대나무 숲은 삶의 모든 국면을 다 끌어안고서도, 그 성질은 차고 단단하다. 미쳐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의 번뇌를 죽순이 다스린다고 옛 의학 서적에는 적혀 있다. 그 임상 효과가 어찌되었건 간에, 대숲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만하다. 대나무 숲의 배후는 복잡적이다. 무기와 악기, 싸움과 안식이 모두 이 숲 속에 있다. 담양 들판에서는 이 숲이 사람의 마음들을 품고 있다.

- 김훈, 「자전거 여행」 중 -

21. (가)~(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생활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를 통해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을 추구하고 있다.
- ④ 관조적인 태도로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
- ⑤ 중심 소재에서 긍정적 가치를 이끌어 내고 있다.

22. (가)와 (다)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상반된 의미의 시어를 대비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에서는 감각적인 표현과 간결한 문체를 통해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④ (가)와 (다)에서는 대상의 생태적 특성을 부각시켜 인간의 삶과 연관시키고 있다.
- ⑤ (가)와 (다)에서는 모두 상승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조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3. (나)와 (다)의 단원에 내포된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시련 속에서 신념을 다지는 공간이다.
- ②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있는 공간이다.
- ③ 삶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한 공간이다.
- ④ 현실에서의 번뇌를 넘어선 초월적 공간이다.
- 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자기 수양의 공간이다.

24. (나)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보리밥 찻나물을 알마초 머근 後(후)에
 바윗곳 물가의 슬카지 노니노라
 그 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이시라
 - 윤선도, 「만흥(漫興)」중에서 -

- ① (나)와 <보기>의 '보리밥'은 모두 현실에 만족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나)의 '마당'은 노동의 공간이고, <보기>의 '물가'는 풍류의 공간이다.
- ③ (나)의 '노랫가락'에서는 흥겨움이, <보기>의 '노니노라'에서는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 ④ (나)의 '벼슬길'과 <보기>의 '너나쁜 일'은 모두 화자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나타낸다.
- ⑤ (나)의 '헤매고 있으리요'와 <보기>의 '부러워할 줄이 이시라'는 화자의 생각을 설의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이다.
- ② ㉡: 매화의 향기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 ③ ㉢: 매화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이다.
- ④ ㉣: 화자가 소망하는 가치를 상징한다.
- ⑤ ㉤: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소재이다.

※ 확인 사항
 ◦ 제한시간 40분